

국민의힘, ‘친윤 vs 반윤’ 갈등 커져… 치열한 당권경쟁 전망

안철수·조경태 의원 당권 도전
반윤 후보 당선 시 친윤 인적쇄신

친윤계 주류, 장동혁 의원 밀어
김문수·나경원 등도 출마 고심

안철수혁신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지도부가 내세운 당의 전반적인 혁신이 ‘좌초 위기’를 겪으며 당 내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8월 전 당대회에 당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21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친윤(친윤석열)·반윤(반윤석열)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윤을 대표하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역시 반윤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의 핵심인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당권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위원장을 내려놓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윤 후보가 당권 후보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든 친윤 세력에 대한 인적쇄신이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염두에 둔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혁신위원장 사퇴의 중요 이유로 꼽았다. 안 의원의 주장에 쌍권은 각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며 비열한 정치행태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입장문

을 내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한 45명 이상의 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어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적쇄신론을 펼친 것과 상반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상설기구로서 인적쇄신위원회 구성이 제 공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6일 때 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남동 관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던 의원들이 무려 45명”이라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고 했던, 즉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보고 인적쇄신위원회에서 철저히 경중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친윤계에서는 자신들의 대리

인으로 장동혁 의원을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주류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면 남은 건 장동혁 의원이다. 주류는 장동혁, 친한(한동훈)계는 조경태 의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후보를 밀 수가 없다”며 “이번에 당 대표는 미래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사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대선 후보도 지난 4일 서울에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농성을 펼친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등록 D-DAY

정청래·박찬대, ‘명심·호남 민심’ 공략

정청래 “李 대통령과 수많은 대화”
광주서 북콘서트 등 세 모으기 골몰

박찬대 “李 대통령 사무실 물려받아”
전북·전남 찾아 현안공약 실현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10일 하루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호남 민심 구애·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마케팅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하루 동안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3의 후보설까지 정치권에 돌았지만 사실무근으로 판명나 정청래·박찬대 의원 사이 2파전으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에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권역별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제2차 임시당원대회)는 8월2일 토요일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후보들은 정부 출범 초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9일 오후 M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만난지 20년 가까이 된다. 얼마나 수많은 대화를 했겠냐”라며 “1기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 옆자리 짝꿍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돌이 나는 대화가 너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회의 때 3~4 시간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 그 때 대화를 많이 했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 개인적 선호도, 취미, 습관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가 일각에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조율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썼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를 자신이 물려 받았으며 이 대통령과 자신 사이의 가까운 거리를 드러냈다.

또한 박찬대 의원실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돕고 있다”며 “지금까지 35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30%가 당 대표 선거에 반영되는 만큼, 권리당원이 밀집한 호남 민심을 구애하기 위한 두 의원들의 전략도 돋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광주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는 등 세 모으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남의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날(8일) 전북을 찾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역의 현안 공약을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민주당의 영원한 선생님이다. 민주당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전남은 항상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셨다”며 “저 박찬대, 그 선생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학생이 되겠다. 제대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하자”

美 관세 대응… 국민의힘에 제안
“지금은 국익 위해 힘을 모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인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국내 산업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미국발(發) 관세 청구서는 단지이 재명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관세 위기 돌파를 위해 국회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전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 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자. 국민의힘의 전략적 해답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에 압박해오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대통령실 “李 정부 뒷받침할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수 신임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김용수 신임 2차장에 대해서는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첨단산업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전략산업위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라며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 syj@